

# 사회적경제 현상과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역할

엄형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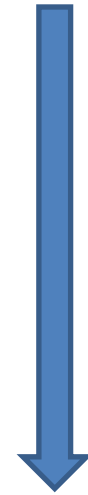
(CICOPA, 조사연구/자료분석  
리에쥬대학 사회적경제센터 박사과정 연구원

# 목차

- 개념의 등장, 전파과정, 경쟁에 대한 분석들
- 사회적경제 개념의 등장, 전파, 발전 과정
  - 프랑스와 유럽을 중심으로
- 노동자협동조합 운동

# 개념의 등장과 전파 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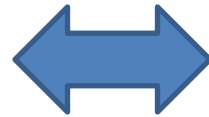
- 새로운 개념 등장의 맥락
- 새로운 개념의 등장
- 개념의 전파와 재해석
- 개념의 제도화와 파생개념의 등장



개념과  
실천의  
다양한  
접합

# 개념의 경쟁

다른 개념들과의  
경쟁



동일 개념 내에서  
다른 해석들간의  
경쟁

개념 -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 
활용되는 정당화의 매개체  
(법제도, 언론, 정책, 교육, 통계, 학술용어...)

# 사회적경제 개념 등장 의 맥락

- 60년대 후반 ~ 70년대
- 정당성의 위기
  - 국가-시장 체제의 위기. 기존 권위의 위기.
- 경제위기
  - 새로운 사회적 과제 대두 - 실업과 신빈곤
- 새로운 대답과 새로운 주체
  - 국가와 시장을 넘어서는 논리와 주체 - 시민사회에 대한 주목. Ex) 노동자자주관리

# 사회적경제 개념의 등장 (F)

- **협동조합, 상호공제조합, 민간단체 연합체들의 네트워크 형성 (1970, CNLAMCA)**
- **용어의 선택 (1977) – 두 가지 이야기**
- **학계, 제3섹터 및 사회적경제 개념 논의**
- **사회당내 PSU 그룹과 시민사회 조직들의 교감**
- **개념의 정식화 (1980) – 사회적경제 헌장**

# 사회적경제 개념의 빠른 제도화 (F)

- 1981년 프랑스 사회당 집권 -> 사회적경제 우호 그룹의 입각
  - 사회적경제 담당 국무조정비서실 (DIES) 설치 (1981)
  - 사회적경제 활동 관련 법 -> 사회적경제 조직간 그룹 구성 허용 등 (1983)
  - IDES -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투자를 수행하는 민관 협력 투자기구 (1983)

# 연대경제 운동의 등장 (F)

- **대안적인 경제활동을 추구하는 운동들의 등장 (1970년대 말)**
  - 연대금융, 공정무역, 유기농, 로컬푸드, 노동통합 : 사회적/윤리적 가치, 근린영역의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 강조 -> 수단으로서 경제활동
- **새로운 운동현상들에 대한 연구자들과 현장활동가들의 공동개념구성 (Co-construction)**
  - 경제개념에 대한 재해석, 19세기 결사체주의의 현대적 재생으로 해석, 마르셀 모스/칼 폴라니의 이론틀을 통해 개념적 토대 구성



# 두 가지 해석의 갈등 (F)

- **전통적 사회적경제**

- 조직된 제도적 지위에 기반한 개념정의 선호
- 전통적 정치영역 통한 구조적, 제도적 개혁 지향

- **연대경제 (새로운 사회적경제)**

- 가치중심적 접근
- 구체적인 상황에서 가치를 중심으로 실천하는 주체들에 주목 (지금여기)

⇒ 전통적 사회운동/신사회운동, 중앙집중적 사고/분권화 경향, 소동구 몰락과 변혁의 지평 변화 등의 영향

# 사회적경제 개념의 안정화 (F)

- **합의된 개념정의 도출** - 제도적 지위+가치중심 : 사회 연대경제 (1990년대 후반) -> 현재 진행중인 사회적경제 법 논의에 반영
- **집합적 주체의 재구성** - 전국 CEGES, Labo / 지역 CRES(S) / 지방정부 RTEs
- **별도의 통계작업**
- **다양한 연구그룹과 교육과정 등장**
- **단일 정책대상이 아닌 다양한 정책에서 고려대상**
- **관련 부처의 신설 및 사회적경제 법 도입 논의** - 2012년 사회당 정부 집권 이후

# 사회적경제 개념의 전파 (유럽)

- 유럽공동체의 역할 (80년대 중반 ~ 90년대 중반)
  - 자크 들로르 유럽집행위원회 위원장
  - 유럽공동체 차원의 사회적경제 관련 컨퍼런스, 결의문, 프로젝트, 실무부서
  - 유럽공동체 차원의 제도적 지위 입안
- ⇒ 유럽 각국에서 사회적경제 개념의 수용 및 재해석 : 국가별로 전통적 사회적경제와 새로운 사회적경제의 조합방식 차이
- + 유럽경제사회위원회 : 유럽의 사회적경제 보고서 (2007, 2012)
- 연구자와 현장의 역할

# 사회적경제 개념의 제도화 (유럽)

- **새롭게 등장한 사회적경제 활동들의 제도화**
  -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 (1991), 벨기에 사회적목적 기업 (1995), 포르투갈 사회연대협동조합 (1996) + 10여개의 새로운 법제도 도입
- **사회적경제 개념 자체의 제도화**
  - 벨기에 왈룬 (1990, 2008), 스페인 (2011), 포르투갈 (2012), 프랑스 (2013 논의중)
- **유럽 협동조합 지위 도입 (2003)**

# 사회적경제 개념의 서유럽 외부로 확산

- **캐나다(퀘벡)** : 199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경제 개념
- **동유럽으로 확산** : 2000년대 초반 동유럽 10개국 EU 가입 - 서유럽 현장주체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개념 전파를 위한 노력
- **유사개념과의 접합** : 남미 민중경제, 연대경제. 보다 사회운동적 성격으로 해석. 연대경제 글로벌 네트워크
- **기타 여러 지역으로의 전파와 재해석** : 아시아, 아프리카
- **UN 관련 조직들의 관심** : UN Inter-Agency Task Force on Social Solidarity Economy (2013)

# 유사개념들과의 경쟁

- **제3섹터, 제3시스템** : 국가/시장과 구분되는 경제활동 영역 1970년대 후반 제안. 이후 사회적경제와 혼용. 사회적경제의 혼합적 성격 강조되면서 퇴조.
- **비영리부문** : 미국 중심으로 발달한 접근법. 협동조합을 배제하고, 민주적 운영구조가 없어도 비영리 조항을 준수하면 비영리부문으로 포함.
- **사회적기업 -> 사회적기업가** : 1990년대 후반 EMES 네트워크 제안. 새로운 사회적경제를 지칭하는 표현이나, 기업가적 접근과 공공정책의 역할 강조. 영미식 접근과 접목. 사회적기업가, 사회적혁신 개념으로 연결.

# 노동자협동조합 1

- **프랑스에서 기원**
  - 다양한 사상가들의 영향 (뷔세, 푸리에, 블랑키 등)
  - 노동운동 및 무정부주의의 확산과 함께 발전
- **협동조합 운동에서는 중요한 비주류**
  - 소비자협동조합 및 정통 맑스주의 노선과 갈등
- **20세기 후반까지**
  - 제3세계 개발 수단, 자주관리 운동에 영감, 몬드라곤과 유고슬라비아 모델 주목, 일부 국가에서 정부주도 육성  
성과 실패 경험

# 노동자협동조합 2

- 20세기 후반 유럽에서 노동자협동조합의 재부흥
    - 주요 국가에서 1970년대 이후 노동자협동조합의 안정적 발전 : 이탈리아, 스페인, 프랑스
    - 경제위기와 실업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노동자협동조합 모델 주목
    - 68운동 이후 대안경제운동 모델로서 주목
    -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노동자협동조합 모델의 활성화 ex)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
- ⇒ 1980년대 중반 CECOP (CICOPA 유럽) 결성. 사회적경제 개념의 유럽 확산에서 주도적 역할.



# 노동자협동조합 3

- **사회적경제 개념 확산에서 주도적 역할**
  - 특히 공공부문의 관심이 '일자리 문제'에 놓여지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로서 노동자협동조합과 취약계층 노동통합 및 새로운 영역에서 일자리 창출 능력을 보여준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 논의에서 주요한 주목을 받음.
  - 사회적기업 논의에서도 주요한 역할. 이때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의 보다 세련된 표현으로 사용됨.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반면, CSR 및 개인중심 접근에 부정적.

# 노동자협동조합 4

- **최근 경향**

- 전 세계에 걸쳐 400만 명이 12만여개 노동자협동조합/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.
- 제도화 진척 (한국, 브라질 + 일본)
- 노동자기업인수 증가 - 기업이전문제 대안 (2000년대 초반 아르헨티나, 80년대 이후 프랑스, 이탈리아 등)
- 세계화에 대응 - 파이낸싱, 그룹, 컨소시움 등

- **CICOPA** ([www.cicopa.coop](http://www.cicopa.coop))

- ICA에서 노동자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, 장인협동조합 등을 대표하는 부문조직. 31개국에 46 회원조직. 주요하게 유럽과 남미. 사무국 - 벨기에 브뤼셀 소재

감사합니다.